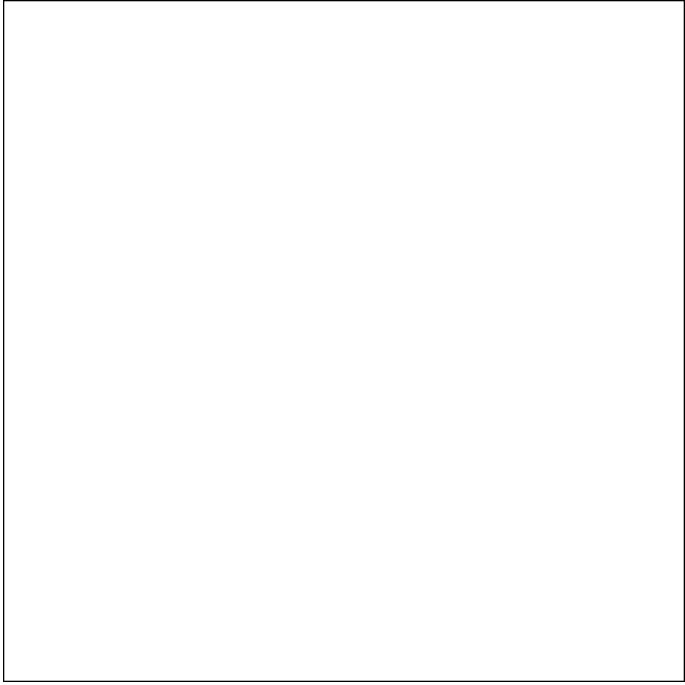


우마는 왜 릿이 릿까?



✎ Basilio Gimo, David Ker  
☑ Carol Liddiment  
📧 Michelle Kim  
2  
🗨️ 한국어



**Global Storybooks**

[globalstorybooks.net](http://globalstorybooks.ne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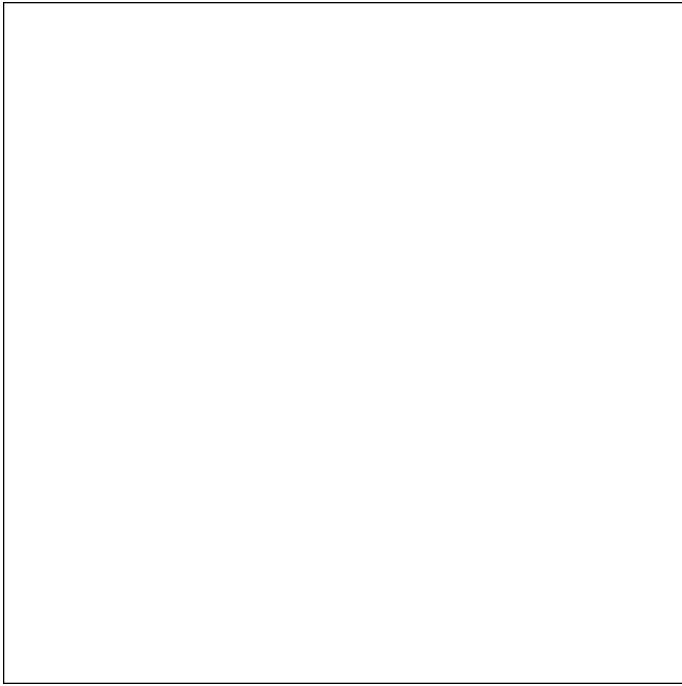
우마는 왜 릿이 릿까?

✎ Basilio Gimo, David Ker  
☑ Carol Liddiment  
📧 Michelle Ki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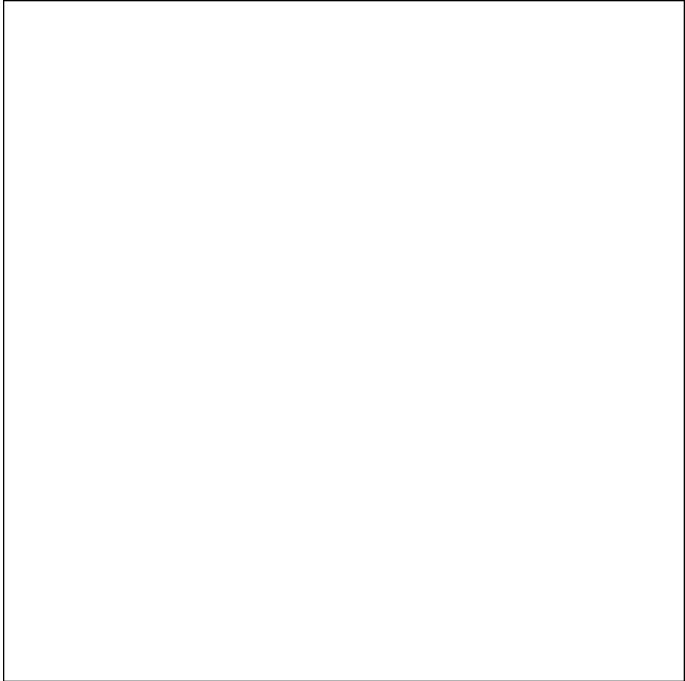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 
[Attribution 3.0 International license.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)  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>





어느 날, 한 토끼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.

그 강가에는 하마도 있었는데, 하마  
는 사체를 하며 사색하고 푸른 풀을  
먹고 있었어요.





하마는 토끼가 자기 옆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토끼의 발을 밟아 버렸어요. 토끼는 비명을 질렀고 하마에게 소리 쳤어요, “야 이 하마야! 너 지금 내 발 밟고 있는거 안보여?”



토끼는 하마의 머리가 타서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마는 불이 두려워서 물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래요.





그러고는 토끼가 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, “저 하마가 풀을 먹으려고 물에서 나오면 불로 태워줘. 재가 나 밟았어!” 불이 대답했어요, “그래! 내 친구 토끼야.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.”



잠시후, 하마는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, 갑자기 불이 났어요. 그 불꽃이 하마한테 붙어서 하마의 털을 태우기 시작했죠.